

평화의 언약

본문 : 에스겔서 34장 17-31절

2020년 4월 16일(목)

#1. 양에 대한 심판(17-22절)

17절, "... 나의 양 떼 너희여... 심판하노라"

20절, "... 내가 살진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이스라엘을 "나의 양 떼 너희여"라고 부르십니다.
정확한 표현은, '나의 양 떼와 섞여 있는 너희여'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안에는 참된 양이 있고, 거짓 양이 함께 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주님이 심판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멸망당한 상황입니다.
목자들(지도자들)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목자 없는 양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힘센 자들(살진 양)이 힘없는 자들(파리한 양)을 밟고 괴롭히며 사람들의 마음을
홀어지게 만듭니다.

21절,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홀어지게 하는도다"

앞에서는 거짓 목자를 심판하셨다면,
이제는 파리한 양들을 괴롭히고 홀어지게 하는 살진 양들, 곧 거짓 양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파리한 양들은 주님이 구원하십니다.

22절, "그러므로 내가 내 양 떼를 구원하여 ...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2. 메시아에 대한 약속(23-24절)

23-24절,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니..."

'내 종 다윗'은 메시아, 곧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아시고, 자기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분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요 10:14-15)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선한 목자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의 주로 오실 겁니다.

#3. 새로운 언약(25-31절)

25절,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언약이 맺어집니다. '화평의 언약'입니다.
'화평'은 살롬입니다.
살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뤄집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을 먼저 하십니다.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약속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전적인 은혜로 화평의 언약을 맺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보십시오.

26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27절, "그리한즉 ..열매를 맺으며..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28-29절,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 그들이 다시는 ..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하나님께서 화평의 언약을 맺으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이처럼 한량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복이 너무나 탐이 납니다.

30절,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4. 에필로그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제가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특히, 4절 가사인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가 좋습니다.

저는 이거면 족합니다.

이름이 알려지고, 부유해지는 복을 받는 것보다,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것을 만민이 아는 복을 받고 싶습니다.

오늘도 묵묵히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맺으며,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는, 오직 예수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양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